

구조 조정이 시급해진 일본의 석유화학업계

산업분석팀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무를 만드는 일본의 석유 화학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재편과 국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내수 신장은 앞으로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석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신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소비자인 자동차, 가전 업계에서는 국제 분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석유 화학 업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할 힘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편에 의한 체력 강화의 필요성은 업계 공통의 인식이지만 총론에서는 찬성하더라도 각론에서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수는 신장 전망이 보이지 않고, 해외 진출에는 역부족

“1997년의 내수 전망은 92년과 같은 정도이고 거의 그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通産省 基礎産業局長의 私的 諮問 機關인 「석유화학제품수급협의회」의 국제 소위원회는 7월 초에 발표한 1993년도版 『석유 화학 제품의 국제 수급 동향』에서 최초로 석유 화학 제품의 일본 국내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예측했다.

일본의 석유 화학 업계에는 에틸렌 메이커가

12 개社가 있다. 국내 시장 규모로 보아 5-6사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업계에는 과당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통산성도 자주 업계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가운데 90년대 들어와 아시아 諸國 등으로부터의 대일 수출 노력이 강화되어 왔다. 歐美 化學 企業의 아시아 진출이라는 逆風도 가세하고 있다. “일본 국내 사업의 확대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산업 전체로서 확대 발전의 길이 막히고 축소 균형으로 될지도 모른다”(통산성 담당관)라는 상황에 빠져있다.

이 때문에 통산성은 종래의 업계 재편론 이외에도 석유 화학 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 성장 센터인 아시아로의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우선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관민 합동의 조사단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로 파견하여 현지 석유 화학 업계나 시장 실태를 시찰하고 중국으로의 조사단 파견도 검토중이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도 2,000년까지는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여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에는 자금력, 기술력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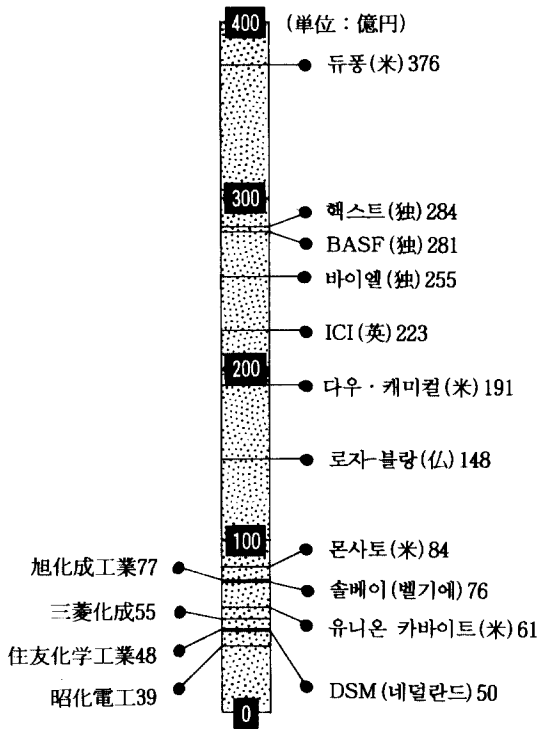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공동 판매 회사 설립 등 부분적인 제휴가 진행되고 있지만, 합작의 경우에는

지체되어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통산성 内에서는, “해의 진출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체로 단독으로는 무리이다. 국제화에의

대응은 일본의 석유 화학 업계의 과당 경쟁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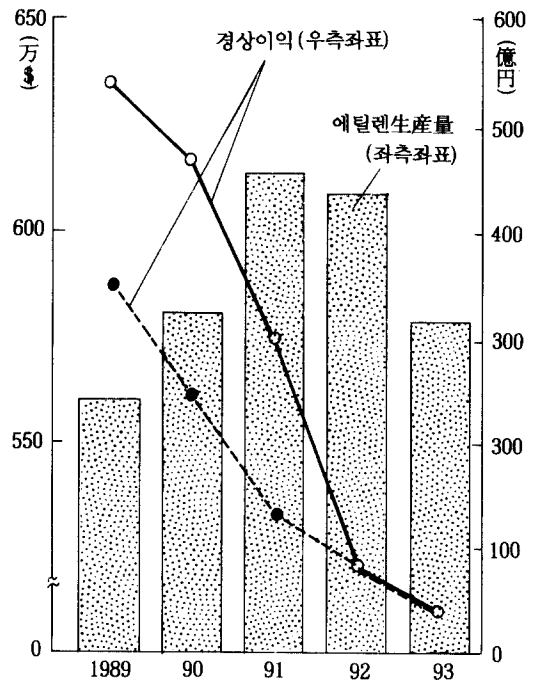
(아사히신문, 1993.7.23)

<主要化学 企業の 賣上額>



주: 1992년 기준임.

<日本の 에틸렌生産량과
石油化学專業2社の 經常利益>



주: 生産量은 曆年, 經常利益은 年度, 93은 모두 予想